



國立公園 登山路 全面開放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자연자원보호를 위해 춘기 산불방지기간(3. 1~5. 31)동안 16개 산악 국립공원 213개 등산로중(자연휴식년제 구간을 제외한) 폐쇄했던 121개 등산로를 6월 1일부터 전면개방하여 공원이용 편의를 도모키로 하고
특히, 지리산 노고단~천왕봉, 설악산 오색~대청봉~설악동코스의 종주 등산로가 개방되어 등산 애호가들의 산행과 신록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행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하고 있다.
- 일기가 불순하거나 장비가 허술할시 산행 삼가
- 자기과신이나 영웅심리에 의한 행동자제
- 산행시 야생식물 함부로 복용 삼가
- 산행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 구급약품 지

참 및 안전 유의

- 탐방하고자 하는 공원에 대한 사전예비지식 숙지
- 교통편의, 숙박시설, 기상예보, 공원자원(문화재, 자연자원 등), 등산로 현황, 위험지역, 공원이용 규제사항 등
- 자기쓰레기 되가져오기 솔선참여
- 통제지역 출입금지 및 출입허용 지정된 등산로 이용
- 공원내에서의 취사 및 야영행위는 허용된 장소에서만 이행
- 지나친 음식물 지참은 삼가하고 가급적 도시락을 지참하고 건전한 산행풍토를 조성
- 공원을 놀이장소로 생각말고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하는 문화국민의식 함양
- 각종 자연자원 및 공원시설 훼손 방지

北漢山 국립공원 案内책자 發刊

—북한산 동부관리사무소—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 동부관리사무소에서는 최근 春·夏·秋·冬 4계절의 빼어난 景觀을 담은 천연색 사진을 수록한 북한산 국립공원 안내책자를 현대자동차(株)협찬으로 제작 배포하고 있어 많은 찬사를 받고 있다.

沿革, 개요, 등산로, 動·植物, 文化자원등 다양한 자료를 깔끔하게 정리하여 수록한 총 20페이지의 이 책자는 이곳을 찾는 外國人들에게도 길잡이가 되게 하고자 英文설명도 함께 곁들이는 친절도 잊지 않았다.

